

조경수목 산책 (IV)

- 대나무 -



임 경 빈
농학박사



▲ 맹종죽숲, 경남 창원 1971, 봄

1. 대나무의 상징

대나무, 식물로 치고는 좀 이상한 식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자란 고향은 산골이었고 그곳에는 원래 대나무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집 뒤 감나무 들레에는 이대가 제법 많이 서 있었다. 겨울이 되면 그 대숲에 참새들이 모여서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무언가 저들끼리 모임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동네 어귀에 아담한 정자가 있었고 정자아래에는 못이 있었으며 못에는 의례히 연꽃이 피어 났다. 이 정자 뜰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대로 생각되는 대나무밭이 있었다.

그 대나무숲의 면적이 좁지는 않았다. 이 정자는 어른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읊조리고 하는 곳으로 대나무를 깎다심은 것으로 안다. 우리 동네에 대나무 있는 곳은 위에 말한 두곳 뿐이었다. 그

만큼 대나무는 흔하지 못했다.

대나무는 그 자체로 쓰임새가 많았다. 예전 어른들의 담배대는 대나무로 만들었고 모두들 담배대는 가지고 있었기에 대나무는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참빗, 붓자루, 베틀의 바다, 부채살등 우리 주변 구석구석을 찾아든 것이 대나무였다. 마을에 대밭이 있고없고간에 우리는 대나무를 옆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대나무의 쓰임새를 넘

어서서 대나무는 뛰어난 경관을 만들어 내는 나무로써 숲으로써 우리곁에 있었고 시화(詩畵)의 소재로써, 또 우리 심성의 순화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소동파의 녹균軒(綠筠軒)의 다음시는 대나무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俗士不可醫

풀이하면 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대나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이 야위게 되고,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속되어 교양을 잃어 버린다.

수척한 사람을 살찌게는 할 수 있으나 일단 사람이 속(俗)해지면 그것은 다시 고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대나무의 정신적 위력 같은 것으로 경고에 가까운 내용

을 읽을 수 있다. 대나무는 서상(瑞祥)식물의 하나로서 서상식물은 다른것과 모여서 다행스러움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아명(雅名)을 낳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고 그 제목으로 쓰는 문구(文句)가 있기도 한데 이것은 동양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바로 화제(畵題)란 것이다. 대나무, 돌, 영지를 일년삼수(一年三秀)로, 대나무와 매화를 이아(二雅)로 매화, 대나무, 돌을 삼익우(三益友) 또는 삼청(三清)으로 매란국죽을 사군자(四君子)로 매화, 난초, 국화 연, 대나무를 오우(五友)로 표현했다.

대나무는 소나무, 해와 달, 산과 물 등과 함께 십장생의 하나로 되어 있어 지난날 우리에게 비쳐진 대나무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화암수록(花菴隨錄)에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가 있다.

이것은 풍치수목에 아홉등급을 붙인 것인데 어떠한 한사람의 주관이 크게 관여할 것이지만 일등에 대나무, 연, 국화, 매화를 들고 있다.

일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높고 뛰어난 운치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나무의 별명이 청우(淸友) 또는 차군(此君)이라 했다. 소나

▼ 제주조릿대, 한라산 1993. 10



▼ 개화병에 걸린 대숲, 전남에서, 1973. 7



▼ 구갑죽, 일본 교토 1981. 9



무는 노우(老友) 매화는 고우(古友) 목련은 담우(淡友) 살구나무는 염우(艷友)등인데 그럴싸한 특성의 포착인것 같다.

백거이(白居易)의 양죽기(養竹記)하나를 들어 두자.

竹木固固以樹德 竹性直直以立身

竹心空空以體道 竹節貞貞以立志

故君子樹之

풀이해 보면, 대나무는 굳고 곧어서 덕을 세우고 성질이 곧고 곧아 몸을 세우며 마음이 비고 비어서 도에 이르고 절개가 정정해서 지조를 세웠다. 그래서 군자는 대나무를 심는다.

백거이의 양죽기를 음미한다면 어찌 우리주변에 대나무를 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조경수로서는 대나무를 뛰어 넘을 것이 없다는 말이된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

교적으로 신앙심이 매우 두터운 아주머니 한분이 우리집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키가 그다지 작지도 않은 편이지만 자신은 작은키라고 여기고 있다. 이분은 산이나 숲에 가서 나무를 만나면 나무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느날 이 아주머니께서 키 큰 대나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 성큼 올라간 키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걸었다.

『대나무야, 대나무야, 너는 어찌해서 키가 크냐?』 대나무는 대답하기를

『나는 키는 크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이말에 아주머니는 느끼는 것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건 마음이 깨끗하고 허욕이 없으며 착한 상태라고 연상된다. 아주머니는 다시 말을 걸었다.

『대나무야 나도 이제 부터는 너

처럼 마음을 더 비우고 더 깨끗한 상황으로 살겠다』 이러한 대화가 대나무사이에 오고 갔다.

그 아주머니는 이웃에 봉사하는 등 신앙심이 더 두터워져 갔다는 것이다. 우리도 대나무에서 이런것을 배울 수 있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무는 스승이란 말이 있다.

2 대나무의 종류

대나무로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에 다음이 있다.

(1) 맹종죽(孟宗竹) 죽순대
(Phyllostachys pubescens)

남쪽지방에 많이 심고 있으며 크게 자란다. 마디는 일륜상(一輪狀)이며 대껍질(엽초:葉鞘)은 일찍 떨어진다.

처음 줄기는 녹색이고 흰가루가 붙어 있지만 뒤에 떨어진다. 5월경에 많은 죽순을 내므로 또 그 식용적 가치가 높아 죽순대로도

▼ 대나무로만 된 중국 항주서호의 죽루(竹樓)





▲ 오죽, 강릉 오죽헌, 1994. 3. 12

말한다. 가지는 마디에 주로 두개씩 난다.

죽순 표면에는 흑갈색의 반점이 있고 거친 털이 나있다.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2) 왕대(참대)(王竹, 苦竹, 眞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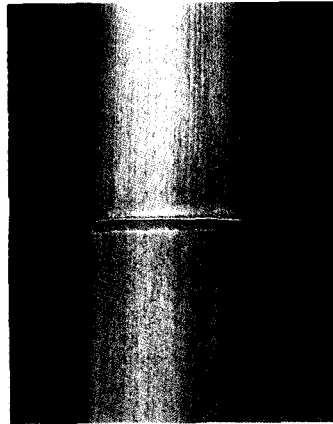
Phyllostachys bambusoides

이것도 중국원산이고 우리나라 남쪽지역에 많이 심고 있다. 줄기의 마디가 이륜상(二輪狀) 인것이 맹종죽과 다르다. 마디에서 두개의 가지가 달린다. 죽순은 맹종죽보다 더 늦게 발생한다. 늦죽으로도 부른다. 죽순껍질에는 흑갈색의 반점이 있고 털이 없고 평활하다.

(3) 오죽(烏竹, 黑竹, 紫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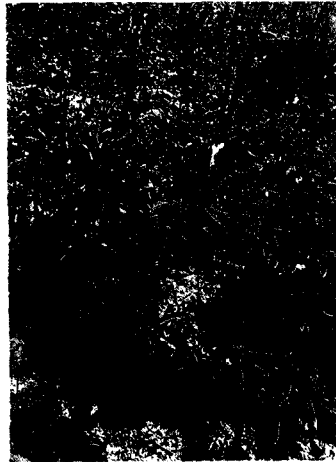
Phyllostachys nigra

오죽의 줄기는 처음에는 녹색이나 다음해부터 검은색을 더해가면서 드디어 흑색으로 된다. 관상용으로 심고 있고 혼하지는 않



▲ 일륜상(一輪狀)의 마디. 맹종죽.

▼ 조릿대 군락, 전남 선암사 1987. 3



다. 강릉 오죽헌에는 잘 자라고 있는 오죽숲이 있다.

(4) 솜대(靑大竹, 淡竹)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중국원산의 대나무인데 줄기에는 얇게 흰가루가 묻는다. 뒤에 없어진다. 마디에서 두개의 가지가 나고 잎의 윗쪽은 녹색이고 아랫면은 약간 흰색을 띄운다.

마디는 이륜상이고 죽순은 왕대보다 더 빨리 4월 하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울죽으로도 말한다. 죽순껍질에 털이 많은 것이 왕대와 다르다.

왕대보다 내한성이 더 강해서 동해안에서는 강원도, 서해안에서는 충남지역까지 식재를 하고 있다.

(5) 이대(신이대)(箭竹)

Pseudosasa japonica

Sasa japonica

이대는 키가 2~4m에 이르고 앞에 말한 대나무들보다는 키가 낮게 크다. 줄기가 가는 편이고 직경 2cm쯤 되고 윗쪽마디에서 한개의 가지가 난다. 엽초는 숙존성이고 표면에는 거친 털이 있다.

내한성이 강하고 강원도 충청남도 황해도 등까지 나고 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서울에서 경관수로 흔히 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담배대, 화살, 부채살등 죽세공용으로 쓰인다.

(6) 조릿대(地竹, 笠竹, 山竹)

Sasa borealis

조릿대의 엽초는 숙존성이며

키는 1-2m쯤 된다. 줄기가 뻑뻑하게 나서 넓은 숲땅을 덮고 다른 나무의 발생을 억누르는 일이 흔하다.

내한성이 있어서 평안남도 함경남도에까지 분포한다. 흔히 산죽으로도 말한다. 잎뒷면 아랫쪽에 털이 나고 엽초에도 털이 있다.

조릿대는 조리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된다고 해서 얻은 이름이고, 자주개화 결실하므로(5년마다 한번씩 개화한다고 한다) 열매를 잘 얻을 수 있어서 지난날 산골에서는 그것으로 식량대용으로 했다. 죽세공용으로도 이용된다.

제주도 한라산에 많이 나는 것을 제주조릿대라 하는데 마디가 도드라지는 것이 조릿대와 다르다. 즉 간초(桿韜)의 밑은 마디와 함께 비대해져서 구상(球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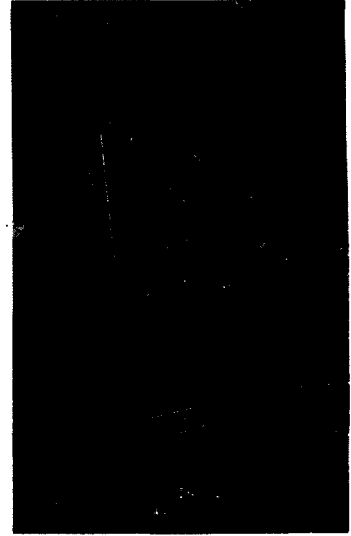
조릿대는 관상용으로 심는다. 대나무 종류는 원예적으로 많은 변종과 품종으로 개발되어 있

다. 필자는 그러한 것까지 이곳에서 설명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한 것은 전문서적을 더 참고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정원에 조경용으로 심는 대나무류는 크게 두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나무류(竹類)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죽피(竹皮: 엽초)가 탈락성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피가 영존성인 이대류(또는 조릿대류)이다. 이대류는 일본에도 많고 그들은 사사종류(笹類, 笹는 가는대세로 일고 일본의 한자이나 우리나라 사전에는 소개되어 있다)라고 통칭하고 있다.

대나무는 화본과(禾本科 Graminae)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하고 지금은 흔히 대나무과(Bambusaceae)로 해서 벼, 보리 등의 벼과(Poaceae)와 서로 다른 과로 나누고 있다.

인도 말레시아 등 열대에 나는 대나무류는 소위 남방죽(南方竹) 즉 뱀부(Bamboo)라 하여 우리나라



▲ 황죽(黃竹), 인도네시아 발리섬 1982. 10

라에 식재되고 있는 북방죽과는 구별이 된다. 남방죽은 지하경이 고구마처럼 생겼고 이 지하경의 끝쪽이 위로 향하면서 죽간이 땅 위로 올라 오게된다.

지하경의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죽간이 벼포기처럼 뻑뻑히 모에서 난다. 이것을 이곳에 사진으로 보았다. 북방죽과 같은 지하경(地下莖)이 없으므로 그러한 지하경의 덩어리를 땅속에 묻으면 뿌리가 나고 삼목묘가 양성된다.

3 사각죽

사각죽(四角竹)이란 것이 있다. 중국원산으로 학명이 *Chimonobambusa quadrangularis*이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에서는 각지 정원에 재식되고 숲모양을 이루고 있다 한다. 죽간은 위로 곧게서고 3~7m의 높이에 달

▼맹종죽순, 진주 임업시험장 1973. 늦봄





▲ 맹종죽으로 사각죽을 만들고 있다.
일본 교오또 1981. 9

하며 직경은 4cm 정도라 하니 굵은 대는 아니다. 줄기의 속은 비어있고 4모나 있어 사각죽이란 이름을 얻고 있다. 방죽(方竹)으로도 말한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사각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가 일본 교오또에서 개최된 대나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맹종죽으로 사각죽을 만드는데 죽순이 20~30cm쯤 자랐을 때 알맞은 길이로 판자를 절단해서 4각형의 나무통을 만든다. 통의 크기는 맹종죽의 줄기의 굵기를 생각해서 만든다.

이 사각형의 통을 죽순에 끼워서 묶어 두면 맹종죽의 줄기는 압박을 받아 네모꼴로 된다. 나무통 위로 대나무줄기가 2~3m쯤 솟아 오르면 나무통을 제거한다.

대나무줄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므로 나무통도 위쪽을

더 좁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수가 정해져 있다. 사각죽으로 할 대나무의 굵기는 눈높이 줄기직경 10~15cm의 것이 알맞다. 이러한 대나무는 좋은 대밭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처리한 나무를 끊는 것은 그해 초겨울쯤이다. 이것은 인공사각죽 만드는 요령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다. 필자는 인공사각죽으로 만든 필통 하나를 선물로 받아 쓰고 있다.

4. 옛책에 나오는 대나무

대죽(竹)자는 대나무 줄기에 대잎이 달려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다른 설명도 있긴 하다. 본초강목이란 책에 대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다음과 같다.

대나무(竹)는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연하지도 않으며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 대개 땅속에서 죽순(竹子)이 생겨 그것이 때에 맞추어 땅위로 나타난다.

나타나서 열흘쯤하면 죽피는 떨어져 나가고 대나무로 된다. 줄기에 마디가 있고 마디에 가지가 나고 가지에도 마디가 있고 가지마디에 잎이 달린다. 잎은 반드시 3잎이고 가지는 반드시 두개씩 난다. 아랫쪽 마디에 가지가 하나가 나면 그 대나무는 수컷이고 두개의 가지가 달리면 암대이다. 암대는 죽순을 낸다. 지하경(땅속줄기)은 동남쪽으로 뻗어 나간다. 5월 13일이 죽취일(竹醉日)인데 이날 대나무를 심으면 잘 산다.

60년마다 한번씩 꽃이 피고 결실하는데 그 대나무는 죽게 된다.

대나무가 죽게 되면 그것을 주(筵, 죽은대나무 주)라 하고 대나무 열매는 복(箬, 대나무 열매 복)이라 하고 작은 대나무를 조(篠, 가는대조)라 하고 큰대나무를 탕(蕩, 왕대탕)이라 한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고 줄기는 둥글다. 대나무의 성질은 각색이다.

본초강목에는 대나무의 설명이

▼ 남방죽(Bamboo), 미국 플로리다 1987. 7



더 길게 이어지나 이 정도로 줄인다.

시경에는 열곳이상이나 대나무가 나타나고 있다. 대나무는 옛적부터 아름답고 절조있고 격조높은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

나무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것이

곧기는 뉘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는 그 종류가 무엇이던 우리 주변 생활 공간에 많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5. 세계적으로 본 대나무

대나무과는 세계적으로 70속(屬) 1200종(種) 및 변종이 있다 한다. 그 중 초본성(草本性) 대나무류(herbaceous bamboo)는 25속 100종으로 주로 남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다.

대나무류는 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곳에 나는데 세계적으로 3대 분포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과 같다)

1. 아열대 아세아지역(asia-pacific), 이곳은 대나무의 주 분포지역에 해당한다.
 2. 남아메리카지역
 3. 아프리카지역
- 이중 아세아지역에는 45속 약 800에 달하는 종과 변종이 있고 분포면적은 1800만ha에 이른다. 중국은 대나무의 주온산지 인데

약 400의 종과 변종이 분포하고 33속이 있다. 33속 중에는 남방죽(Sympodial bamboos)도 있고 북방죽(Monopodial bamboos)도 있다. 오히려 열대성죽류와 온대성죽류라하는 것이 더 타당한 명칭일지 모른다.

세계적으로 본 죽류의 분포면적은 약 2100만ha로 추산되고 있다.

앞에 아세아지역이라 함은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호주, 뉴지랜드, 태평양제도를 말한다. 그중 한국, 일본, 황하와 양자강 유역은 온대성죽의 주요 분포구역으로 되어 있다.

남북아메리카에는 17속 약 270에 이르는 종과 변종이 있는데 주로 소죽종(小竹種) 초본성죽종으로 경제성이 낮다. 북미대륙에는 대나무류가 거의 없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는 세네갈(senegal 16° N)과 모잠비크(mogambique 22° S)에 분포하고 마다카스칼(madagascar)에는 11속 40종이 있다.

기온과 강수량으로 따져본 대나무의 3대 분포지역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온대 지역 10~15°C 800~1000mm 강수량
 2. 아열대 지역 15~20°C 1000~1500mm 강수량
 3. 열대 지역 20°C이상 1500mm이상 강수량
-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을 뜻한다.

유럽에는 1827년 비로소 *Phyllostachys nigra*가 들어갔다. 영국에는 현재 중국과 일본등지에서 14속 75종의 대나무가 도입되어 자라고 있다 한다.

대나무의 연구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그 연구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그것은 형태연구에 있어서 꽃의 구조가 중요한데 대나무꽃은 자주 피는 것이 못되므로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보아 가장 경제성이 높은 대나무는 맹종죽이다. 맹종죽의 죽간의 생산성은 재배의 집약도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국가별로 본 맹종죽 죽간 생산성을 보인다.

- 일본 7톤/헥타/년
- 중국 10톤/헥타/년
- 인도전국 0.33톤/헥타/년

대나무를 인류가 사용한 역사를 추적해본 결과 약 5000년전의 신석기시대부터라고 한다. 일찌기 종이 없었을때 인간은 대나무 조각에 문자를 기입했다.

중국 인도등지에서는 대나무를 제지원료로 많이 쓰고 있다. 생중량 4톤의 대나무로 1톤의 비표백 펄프가 얻어지고 있다.

죽순은 고급식품으로서 영양가가 매우 높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성분분석을 한 것을 보면 당이 2~4%, 지방이 0.2~0.3%, 단백질이 25~30%, 아미노산이 16~18%를 나타내고 있다.

조경용으로의 대나무의 가치가 더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